

쇼핑과 휴양을 동시에

괌 투몬

유정열 / 글, 사진

괌은 친숙하다. 그래서 편하다. 신혼부부에게 인기 있는 허니문 여행지이자, 여성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쇼핑의 천국이다. 직장인들이 짧은 휴가를 통해 가고 싶은 여행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쉬면서 해양 레포츠를 경험할 수도 있고 지갑을 유혹하는 쇼핑센터에서 신나게 쇼핑을 즐길 수도 있다. 매력적인 해변에서 딱딱한 일상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괌으로 떠나보자.

세상 일은 잠시 잊어라

휴가를 간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다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연인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든다. 30년 전 떠나고 싶은 신혼여행지 하면 제주도였다. 집집마다 사진첩을 꺼내 보면 제주도를 배경으로 수줍은 미소와 함께 담긴 부모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다.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해외여행이 자유화 된 1989년의 일이다. 당시 괌과 사이판은 모든 신혼부부들의 로망 여행지였다. 지금은 허니문 여행지로 괌의 인기가 조금 시들었지만, 여전히 가족끼리 친구끼리 찾는 인기 여행지다.

괌은 미국령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오래 전부터 원주민인 차모로족이 살고 있었다. 1521년 마젤란이 세계일주 도중에 발견해 서구에 알려졌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스페인의 장군이자 필리핀 총독을 지내던 레가스피가 지배를 했다. 이후 333년 동안 괌은 스페인 땅이었다. 그리고 1898년에 미국이 통치권을 이양 받았다. 1941년에는 일본군이 괌을 공격해 점령하였으며, 3년 뒤 미국이 재탈환하였다. 괌은 서구에 알려진 이후 스페인, 미국의 통치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솔레다드 요새, 스페인 다리, 스페인 광장 등 많은 식민 유적들이 남아 있다. 겉으로 보면 평화롭기만 한 섬이지만, 안

을 들여다보면 역사의 굴곡들이 숨어있다.

괌 여행의 일 번지, 사랑의 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이면 괌에 도착한다. 공항에서 아름다운 해변까지 겨우 10분. 10분만 달리면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들이 해변을 따라 줄지어 있는 투몬에 도착한다.

괌에서의 하루는 사랑의 절벽(Two lovers point)에서 시작한다. 투몬만과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사랑의 절벽은 괌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꼭 가는 필수 코스. 버스에서 내리면 '사랑의 종'이 맨 먼저 반긴다. 신혼부부들은 이곳에서 사랑을 다짐한다. 사랑의 절벽 전망대에는 세계 각국의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약속한 지물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종이지만, 국내 드라마에도 자주 출연했다. 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의 주인공 신세경과 연우진이 사랑의 감정을 쏟아내던 곳도 바로 이곳이다. 연우진이 종을 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에 신세경이 종을 치는 장면이 나온다.

사랑의 절벽은 슬픈 전설도 간직하고 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스페인 장교가 원주민인 차모르 여인에 반해 강제로 결혼을 종용했다.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던 차모르 여인은 남자와 도망가기로 했다. 추격해 오는 스페인 군대를 피해 차모르족 연인은 서로의 머리를 한데 묶고 높이 100m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사랑에 빠진 연인 앞의 절벽은 세계의 마지막이었다. 가혹한 현실에서 영원한 사랑을 선택한 연인, 둘만의 바다가 부스러진 햇살로 물들었다.

안가면 후회하는 쇼핑센터

사랑의 절벽을 뒤로하고 괌을 대표하는 쇼핑센터인 DFS갤러리아로 향한다. 뜨거운 햇살이 작렬하는 한 낮인데도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괌은 쇼핑 천국이다. 명품들부터 중저가 브랜드까지 다양하다. 괌은 섬 전체가 면세구역이어서 명품쇼핑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인기가다. DFS갤러리아, 쿠몬샌드플라자에 들어가면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미국 중저가 브랜드인 코치나 나인웨스트 같은 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마이크로네시아 몰 안에 있는 메이시스, 괌 프리미어 아울렛은 중저가 브랜드 의류와 잡화를 구입하려는 손님으로 인기가 많다.

쇼핑은 옷으로 끝나지 않는다. 의약품과 유아용품도 필수 쇼핑품목이다. 세계적인 종합영양제 센터를 비롯해서, 소화제로 유명한 알카셀처와 알레르기 치료제, 비타민 등은 선물용으로도 좋은 의약품들이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PIC

괌의 수많은 리조트 중에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 특

히 인기 있는 곳이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 괌(PIC)다. 리조트 안에서 워터파크는 물론이고 스노클링, 윈드서핑을 비롯해 수많은 액티비티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돼, 어린이가 있는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세계 각국에서 온 어린이들과 함께 스포츠와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쉽게 영어를 써볼 수 있는 나눔 씨앗 영어 교실과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연인들을 위한 세인트 라구나 체플 웨딩체험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국적인 풍경과 아름다운 건물 안에서 사랑을 약속하는 애뜻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원한다면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추억으로 남길 웨딩사진만 찍을 수도 있다. ☎

☑ <여행정보>

- * **항공** :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이 매일 주 7회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더 늘어난다. 각 항공사마다 시간을 확인하자. 괌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체결되어 있어 45일간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
- * **언어** : 영어, 차모로어
- * **시차** :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정도 빠르다.
- * **화폐** : 미국달러(US Dollar)를 사용하며 현재 환율은 1달러당 약 1,023원이다.
- * **기후** :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선선한 쾌적한 날씨다. 1월에서 6월은 건기에 속하고 7월에서 12월은 우기에 속한다.
- * **여행** : 리조트에서 나와 주변여행지로 가려면 빨간색의 람람버스를 이용하자. 쇼핑센터와 호텔을 이어주는 람람버스는 웬만한 명소에 다 데려다 준다.